

서정석(사법연수원 동기) 1차 구술

1. 구술자: 서정석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8월 26일
5. 구술장소: 대구 수성구 서정석법률사무소
6. 구술분량: 04분 38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취임 첫해 사법연수원 동기들의 청와대 방문

면담자 : 그 기수 분들¹⁾ 청와대에 처음 오(5)월 달에 가셨을 때 이천삼(2003)년 오(5)월, 처음 오셨을 때 이발하시고 난 다음에 자전거타고 오셨다면서요?

구술자 : 예, 예. 그게 참 그때 이제 가니까 관저로 우리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본관으로 간 게 아니고 관저로 도착을 했는데. 일요일인데 관저에 도착을 하니깐 그 영부인에게서 먼저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 앞에 녹지원하고 여러 가지 춘추관 뭐 글로(거기로) 먼저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와대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면담자 : 견학코스가 있죠, 그렇게.

구술자 : 이렇게 인제 하면서 먼저 영부인에게서 걸어가, 대통령님이 지금 이발하고 이러신다고 쪼끔 뒤에 나오신다고 그러면서 그래 걸어가지고 우선 춘추관하고 녹지원 쪽으로 걸어가 가지고 사진도 하나 찍고. 그때까지 대통령님이 안 오셨지요. 그래서 영부인하고 우리 내외들하고 다 어울려 사진도, 춘추관, 그 녹지원에서 사진도 하나 찍고 이렇게 지내고 나서는 거기서 본관까지는 쪼매난 봉고버스 같은 걸 하나 관내, 경내버스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제법 거리가 쪼끔 됐던 것 같은데 그래가 청와대 본관으로 가서 인제 영부인에게서 안내를 해가지고 본관 일이(1, 2)층을 다 살살이 집무실하고 모든 걸 영부인 인제 본인 집무실도 보여주고. 전부 다 둘러봐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본관에서 막 이렇게 나올려는 찰나에 노 대통령이 오셨어요.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잠바차림에 자전거를 타고 그 본관 앞으로 오셨더라고. 그래가 우리도 놀래가지고 거기서

1) 사법연수원 동기를 말함.

반갑게 인사를 하고.(웃음) 그때 완전히 옛날에 우리 참 연수원 시절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이데.(웃음) 잠바에 허름하게 입고 머리 깎고 이래가 자전거타고 나타나셨으니까.

그래가는(그래서는) 바로 본관 현관 앞에 본관 계단에서 사진을 한 장 찍으시고 다시 청와대 한 번 더, 노 대통령이 직접 또 이렇게 보자 이러면서 이(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집무실에 근무하는 경위 같은 거, 결재과정 이런 걸 설명을 죽 해줍니다. 그래 해주고 내려와서 그 앞에 나와서, 정문 앞쪽으로 나와서 인제 사진 배경으로 잘 나오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노 대통령이 경내에서 그래 하고는 또 인제 본관 구경을 다 하고. 또 관저로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땐 버스에 합승을 같이 했지. 그때 내 기억으로는 노 대통령이 인제 내하고 같이. 노 대통령 같은 자리, 고 앞자리에 둘이 앉고 나머지 또 전부 다 부인석 해가(부인들끼리) 앉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딱 앉게 (됐어요).(웃음) 그래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인제 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 고 때가 딱 마주치니까 할 말이,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막상 대통령 옆에 딱 앉으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오 “참 수고했다” 꼬, 내가. 꼭 잡으며 수고했다 카니, 노 대통령이 “월...” 카고. 이런 말 한마디하고는 눈빛으로만 인사를 했어요. 그래 그, 막상 할 말이 많은데 그 뭐 짧은 시간에 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 구술자 주요이력

1946. 대구 출생

1964. 경북고등학교 졸업

1969.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0.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1983.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지원장

1987. - 1991.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2. - 1993.0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0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 변호사 개업(대구)

변호사서정석법률사무소 변호사(2012년 현재)

2005.02 - 2007.01 제47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노무현 대통령과 제17회 사법시험 동기로 사법연수원 시절을 함께 보냈다. 동기들 가운데 노 대통령과 46년생 동갑이라는 인연으로 절친하게 지냈다. 1980년대 대구에서 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대구고법을 오가던 노무현 변호사와 자주 만났다. 1996년 개업 이후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임 시기 및 퇴임 후에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청와대, 봉하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